

## 여름철 번식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관리 포인트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여름철이면 대부분의 농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번식성적의 저하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여름철 분만한 모돈의 사료 급여 관리에서부터 이유모돈의 발정유도 및 교배관리, 그리고 임신돈의 체형관리와 모돈에 대한 방서 대책등의 전체적인 관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여름철 번식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 1. 포유모돈의 사료섭취량을 늘려 주기 위한 관리사항

- 목표 사료급여량을 설정하고 목표량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준다. 모돈 사료 급여표를 모돈마다 분만틀에 비치하여 매일 사료 섭취량을 체크 한다. 이 때 분만후 이유시 까지 일 평균 6kg정도의 사료 섭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

는 모돈에게는 별도의 에너지원과 영양제, 라이신 등을 보강해 주도록 한다.

- 탈진한 모돈은 물을 먹으려고 일어나지 않으므로 강제급수를 실시한다.(포유돈, 임신돈 포함) 또한 포유모돈의 경우 낮에 1~2회 정도 호스를 이용하여 누워있는 모돈에게 강제급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포유모돈 사료급여 횟수는 일일 3회 급여한다. 식욕부진 모돈은 급여횟수를 증가하고 사료를 신선한 물과 함께 연사한다. 체온측정을 하여 39.5℃를 넘지 않도록 해열제, 항생제, 진정제 및 수액처치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 임신말기 모돈의 체형점검, 특히 과비를 방지하며, 음부 및 유방이 부을 경우는 즉시 사료를 감량한다.

- 분만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만 유도제와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분만 시간을 단축 시켜 준다. 고온 환경 하에서 모돈이 탈진 상태에 있을 때 분만 지속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산 증가 및 분만사고 위험이 높아

〈표 1〉 모돈의 단계별 체온, 호흡수, 맥박의 변화

모돈의 단계	직장체온(°C)	호흡수(분당)	맥박수(분당)
임신기간	38.7	13~18	70~80
분만24시간전	38.7	35~45	"
분만12시간전	38.9	75~85	"
분만6시간전	39.0	95~105	"
최초자돈분만시	39.4	35~45	"
분만12시간후	39.7	20~30	"
분만24시간후	40.0	15~22	"
분만1주일후~이유까지	39.3	"	"
이유1일후	38.6	"	"

진다. 또한 분만에정일을 지나서 분만하게 될 경우 특히 여름철의 경우는 난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분만유도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 초산돈, 과비돈은 분만직후 해열제와 항생제 주사
- 분만사 내의 초산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하고 특별관리 실시
- 분만에정일 최소 7일 이전 새벽에 분만대기돈으로 이동.
- 피드빈 단열

## 2. 임신초기와 말기 모돈의 관리가 중요하다.

1) 임신초기 : 교배후 4주 동안에 고온 스트레스를 모돈이 받게 되면 배아의 조기 사망이 증가하여 산자수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초기 유산이 증가하기도 한다.

2) 임신말기 : 임신말기에는 각종 백신이 집중되므로 더위에 지친 만삭 모돈에게는 심한 부담을 안겨 준다. 또한 만삭 모돈들은 몸집이 커지므로 스톨에서 서로 밀착이 되므로 체열 발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돈들이 송풍기의 바람이 단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본다.

## 3. 모돈의 과비를 방지한다.

과비 모돈은 과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하에서 과비 모돈은 두터운 지방층에 의해 체열

발산이 어려워지고 또한 무거운 체중 유지를 위해 열생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더욱 견디기 힘들게 된다.

모돈의 과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모돈의 산차별 그리고 각 단계별 정상 바디컨디션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비 모돈이 많은 농장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모돈의 바디 컨디션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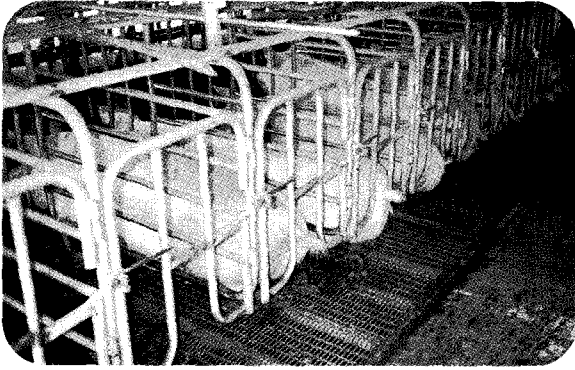
- 모돈의 각 단계별로 체형에 맞게 사료조절을 한다.

(주 1회 체형 및 임신 일령에 따라서 사료량 조절)

- 문제 모돈 및 노산돈의 계획적인 도태
- 분만을 및 산자수를 높이기 위해 세밀한 교배관리가 요구된다.

- 이유일령에 따른 모돈 바디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다. (이유일령이 3주령 이내일 때는 4주령 이유 보다 전체적으로 모돈의 상태가 약간 마른 듯한 것이 좋다.)

이밖에도 세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돈의 최적 바디컨디션 유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4. 여름철 교배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자.

##### 가. 웅돈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자.

웅돈도 모돈과 마찬가지로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번식기능이 저하한다. 보통 웅돈이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약 45일 후에 사정되는 정액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7월에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웅돈은 8월경부터 정액의 질이 문제될 수 있다.

- 보유하고 있는 전체 웅돈에 대한 정액검사를 미리 실시한 후 정액 질이 불량한 웅돈 및 노령 웅돈을 도태시킨다.

- 웅돈의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충분한 영양공급과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웅돈사용 현황판 활용)

- 웅돈방 수세, 소독 그리고 포피세척 및 소독과 같은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고온으로 인한 승가육 저하 방지를 위해 교배는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맞추어 실시한다.

##### 나. 인공수정용 정액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자.

- 정액 보관은 전용 보관고에 한다.
- 보관고내에 최고 최저 온도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온도를 점검한다.
- 정액 이동시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교배 복수가 많을 때는 정액의 온도 유지에 유의한다.

##### 다. 여름철교배도 수태율과 산자수를 높일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모돈의 산차 구성이 잘 맞아야 한다.

- 생식기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철저히 한다.(특히 자궁내막염 및 질염).

- 일본뇌염 백신 및 파보백신을 철저히 접종한다(특히 후보돈에 교배 들어가기 2주전까지는 1,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유후 재귀일수를 가급적 5일로 유지하도록 관리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포유모돈의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사료를 섭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돈사료에 영양제를 추가로 첨가하여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강해준다. 또한 이유후 웅돈접촉을 빈번히 해주어 발정유도를 위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

- 초산돈의 경우 분만들에서 과도한 체력소모가 우려되므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 교배전 강정급이를 철저히 시행한다. 특히 후보돈의 경우 미리 현황판 설치를 하여 초교배 예정일 10일 전부터 강정 급이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임신초기에 고온에 노출이 안되도록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 **양돈**